

거칠것 없는 펠리페 5경기 연속골

S 스포츠

14 전남매일
2019년 4월 8일 월요일

5경기 8득점
골 감각 절정
박정수 시즌 1호
광주, 안양과 2-2 무승부
5G 무패 선두 독주



거칠 것이 없다. 광주FC 펠리페가 5경기 연속골을 터뜨렸다.

펠리페는 7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19 5라운드 FC안양과의 경기에서 후반 7분 시즌 8호 골을 기록했다. 5경기 8골, 절정의 득점력을 뽐낸 펠리페는 K리그2 득점 1위를 질주했다.

수중전과 주전 골키퍼의 부상 등 악전고투 끝에 광주는 5경기 무패행진을 기록했다. 안양과 2-2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을 보탠 광주는 3승 2무(승점11)로 리그 선두를 유지했다. 2위 아산(3승2패·승점 9)과의 승점 차는 '2'로 벌렸다.

펠리페는 '질정의 킬러'였다. 전반전에 안양의 수비수들에게 둘러싸여 이렇다 할 공격을 하지 못했던 펠리페였지만 후반전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펠리페는 1-1로 팽팽히 맞서있던 후반 7분 이시영의 크로스를 정확하게 헤딩골로 연결했다. 올 시즌 5경기 연속골이며 정규리그 8호 골이다.

펠리페의 득점으로 2-1로 앞서던 광주는 후반 37분 안양 팔라시오스에 동점골을 허용해 아쉽게 승리를 놓쳤다. 비로 인해 수중전이 된 가운데 광주는 주전 골키퍼 이진형이 부상으로 교체되는 등 힘든 경기를 펼쳤다. 광주는 이날 좌우 날개에서 변화를 줬다. 앞서 4라운드까지 활약했던 김정환과 엄원상, 이회근 등을 빼고 대신 두현석과 임민혁을 배치했다. 두현



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19 FC안양과의 경기에서 후반 7분 득점에 성공한 광주FC 펠리페(9번)가 동료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FC도쿄 나상호 J리그 데뷔골

국가대표 미드필더 나상호(23·FC도쿄)가 일본프로축구 J리그 진출 후 3경기 만에 첫 골을 넣었다.

나상호는 지난 6일 일본 도쿄의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J리그 6라운드 시미즈 S-펄스와 홈경기에서 소속팀이 0-1로 끌려가던 후반 중반 교체 출전에 동점 골을 터트리고 2-1 역전승의 디딤돌을 놓았다.

후반 2분 가타가와 고야에게 선제골을 내준 FC도쿄는 후반 15분 다카하기 요지로를 빼고 나상호를 투입했다.

이후 나상호는 후반 30분 디에구 올리베이라가 상대 페널티박스 왼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골문 앞에서 왼발 눈스톱 발리슛으로 연결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FC도쿄는 후반 41분 자엘의 도움으로 올리베이라가 역전 결승 골을 터트려 2-1로 이겼다.

2017년 광주FC에서 프로에 데뷔한 나상호는 지난 시즌 31경기에 출전해 16골 1도움을 기록하며 K리그2(2부리그) 최우수선수(MVP)와 득점왕, 베스트일레븐을 모두 휩쓸었다.

올 시즌을 앞두고 FC도쿄로 이적해 새로운 도전에 나선 그는 지난 5라운드까지는 2경기에 후반 막판 교체 투입돼 총 18분을 뛰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날은 J리그 진출 이후 가장 긴 30여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비며 끝까지 터트려 리그 적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FC도쿄의 또 다른 한국인 선수인 중앙수비수 장현수는 풀타임을 소화했다.

FC도쿄는 올 시즌 6경기에서 무패행진(4승 2무)을 벌이며 산프레체 히로시마(4승 2무)에 골 득실 차에서 밀린 2위에 올라 있다. /연합뉴스

광주 KIA-키움 경기 우천 취소

7일 오후 2시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예정이던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 리그 KIA 타이거즈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가 우천 취소됐다.

그라운드에 방수포를 깔아놓고 경기 시작을 기다리던 KBO 심판진은 빗줄기가 그치지 않자 오후 2시 15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한편, 6일 키움에 4-14로 대패한 KIA는 5승8패를 기록중이다. /최진화 기자

석과 임민혁은 FA컵 전남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기존 멤버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 투입돼 안양의 골문을 노렸다.

이진형이 부상으로 교체된 아절한 상황은 전반 25분 나왔다.

안양의 공격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골키퍼 이진형과 수비수 김정환이 충돌했다. 이진형이 안양의 팔라시오스 불을 편칭하는 과정에서 김정환의 몸

에 맞은 불이 골대 오른쪽을 맞고 뿔겨 나오면서 실점은 막았다. 하지만 이진형이 김정환의 무릎에 얼굴을 부딪치며 골절의 의심돼 운명국과 교체됐다. 어수선한 상황에 광주가 먼저 실점했다.

전반 31분 안양 팔라시오스의 슈팅을 막는 과정에서 김정환의 몸에 맞은 불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안양에 0-1로 리드를 내줬다.

그러나 광주는 전반 종료 휘슬이 울리기 직전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중거리 지역에서 이은뎬이 길게 올린 크로스를 수비 뒤로 절묘하게 파고든 박정수가 깔끔한 헤딩 슈트로 마무리해 1-1 균형을 맞췄다. 박정수의 시즌 1호골이다.

후반 시작과 함께 펠리페의 역전골이 나오면서 광주가 리드를 잡았다. 하지만 개막전에서 부산을 상대로

4골을 몰아쳤고, FA컵 64강에서는 이천시민구단을 상대로 5골을 넣었던 안양의 발끝도 무서웠다.

후반 37분 팔라시오스의 골을 막지 못한 광주는 두 차례나 슈팅이 골대를 맞히는 불운으로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광주는 오는 14일 오후 3시 대전 시티즌과 6라운드 홈경기를 갖는다. /최진화 기자

특급 신인 조아연 KLPGA 국내 개막전 우승

롯데렌터카여자오픈 9언더파 279타

특급 새내기 조아연(19)이 한국어 자프로골프(KLPGA)투어 국내 개막전에서 우승하며 새로운 스타로 화려하게 등장했다.

조아연(19)은 7일 제주 서귀포시 롯데 스카이힐 제주 컨트리클럽(파 72)에서 열린 롯데 렌터카 여자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쳐 4라운드 합계 9언더파 279타로 정상에 올랐다.

조정민(24)을 1타차로 제친 조아연은 2008년 스포츠서울-김영주골프 여자오픈을 제패한 유소연(28) 이후 11년 만에 신인으로 국내 개막전에서 우승하는 진기록을 썼다.

조아연은 작년 아마추어 신분으로 마지막으로 치른 월드 팀 챔피언십 개인전 우승으로 KLPGA투어 정회원

자격을 판데 이어 시드전 수석 합격으로 일찌감치 신인왕 후보로 꼽혔던 대형 신인이다.

지난해 12월 효성 챔피언십에서 앞당겨 치른 시즌 개막전에서 공동6위에 올라 가능성은 입증한 조아연은 두 번째 출전한 대회에서 경쟁한 언니들을 제치고 역전 우승을 차지해 올해 KLPGA투어 판도에 변수로 등장했다.

우승 상금 1억2,000만원에 받은 조아연은 상금왕 경쟁에 뛰어들 발판을 마련했고 신인왕 레이스에서는 멀찌 감치 선두로 달아났다.

또 오는 18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롯데 챔피언십 출전권을 받았다. /연합뉴스



7일 제주도 서귀포 롯데스카이힐 제주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LPGA 국내 개막전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한 조아연이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체육중 조정우 양궁종별대회 개인종합 2위

남중부 은메달 4개...순천풍덕중 남수현 여중부 '은'

광주체육중학교 조정우(3년)가 지난 1-3일 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제53회 전국남양궁종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 4개를 획득했다.

남중부 개인전에서 조정우는 50m(330점) 2위, 40m(346점) 2위, 30m(356점) 2위를 하며 개인종합에서 1,357점으로 김제덕(예천중·1,393점·대회신기록)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여중부 개인전에서는 순천풍덕중 남수현이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남수현은 60m(336점) 1위, 50m(323점) 3위, 40m(342점) 2위를 했고 개인종합에서 총점 1,344점으로 2위에 올랐다. 1위는 1,348점을 기록한 최혜미(밀양여중)가 차지했다. 3-5일 열린 여초부 개인전에서는



조정우 (1,371점)에서 각각 2위를 기록했다. 김시우(35m(336점)와 개인 종합(1,371점)에서 각각 3위에 올랐다.

한편, 제53회 전국남양궁종별선수권대회 고등부와 대학·일반부 경기는 오는 22-26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다. /최진화 기자

'쌍둥이 복서' 이창록·창한 사이좋게 메달

협회장배복싱 은·동...광주체육중 은1동2

광주체육중학교 이창록·창한(2년) 쌍둥이 형제가 제30회 대한복싱협회장배 전국복싱대회에서 나란히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다.

7일 광주체육중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립대 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남자중등부에서 이창록이 46kg급 은

메달을 획득했으며 이창한은 42kg급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광주체육중은 쌍둥이 이창록·창한 형제 외에도 안승현(2년)이 52kg급에서 동메달을 차지하며 대회에 출전한 2학년 3명이 모두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진화 기자

광주체육중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지난 동계훈련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전라북도 군산에서 개최될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대비해 전국 각 팀의 선수들과 기량을 비교하는 것은 물론 선수들도 자신감을 갖게됐다"고 말했다.



광주체육중학교 이창록·창한 쌍둥이 형제. /광주체육중 제공